

Reward Funding Trend Report

2018

2018년을 알아야 2019년이 보인다!

Wadiz

목차

트렌드로 보는 와디즈 펀딩 인사이트

- | | |
|---------------------------------|--|
| 1. 불편함을 견디지 않는 사람들,
호모-컨비니언스 | Wear revolution
원터치 푸드
스몰 아이디어 빅 컨비니언스 |
| 2. 무한의 기대수명 | 프리미엄 푸드
웰 슬립
미세먼지 FREE |
| 3. LESS | Wireless
Genderless
Guileless |
| 4. 라이프 밸런스 | 슬기로운 취미생활
홈캉스
떠나니까 청춘이다 |
| 5. 더불어 사는 세상 | 럭셔리 팻팸족
스포트라이트 프로젝트
지구 환경 수비대 |

와디즈 메이커 님께

2018년 와디즈펀딩 트렌드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균형’입니다.

과거 일상의 동선이 일과 집에 국한된 모습을 보였다면 2018년 현대인은 그보다 훨씬 다채로워진 라이프스타일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일만 하고, 집에서는 잠만 자는 생활에서 벗어나 직장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보다 아늑해진 집에서 만끽하는 기쁨을 깨닫고, 과도한 업무와 피곤에 가려져 있던 시공간에 눈뜨게 되었습니다. 마치 인형 옷 입히기 게임을 하듯 자신의 삶에 다양한 컬러와 형태의 옷을 입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일과 여가, 건강의 균형 잡힌 생활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레 높아졌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기기들과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물건들에 아낌 없이 투자하는 서포터가 늘어났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의 한계와 여가 시간이 늘어나자 이 기회를 최대한으로 누리기 위해 필수적인 건강을 챙기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경험에 뜨거운 호기심을 보였으며, 여유로워진 마음으로 내 도움이 필요한 다른 존재에게 사랑과 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쪽 저울에 추를 더 올려놓자 정신 없이 흔들리는 양팔 저울이 금세 안정을 되찾듯 갑작스레 늘어난 선택지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헤맸던 서포터는 다양한 펀딩에 참여하며 삶의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이번 2018 와디즈 리워드 펀딩 트렌드 리포트에는 빠르게 바뀌고 있는 사회문화의 흐름과 현대인의 삶의 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트렌드 리포트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2019년을 빛내는 성공 메이커가 되어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2019년도 변함 없이 메이커 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렌드로 보는 2018년 와디즈 펀딩 인사이트



1.

불편함을 견디지 않는 사람들, 호모-컨비니언스

호모 사피엔스는 본성적으로 타고난 귀차니즘과 시대를 거듭해
발전해온 기술을 활용해 호모 컨버니언스로 진화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이 인류가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바로 ‘편리함’입니다.

2018년의 호모 컨버니언스는 모기 불린 듯 일상을 간질이던
불편함을 해소해준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아낌 없는 찬사와 폭발적인 펀딩으로
화답하였습니다.

1. 호모 컨비언스

1) Wear revolution



베스트로닉 밸벌조끼
569명 서포터
64,836,000원 펀딩

여행 갈 때 입는 옷, 고고팬츠 (2회 진행)
1,861명 서포터
259,441,000원 펀딩

“예쁜 데다가 편하기까지 하다!” 는 한 벌의 옷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편리함’이 더해져야 합니다.

바쁜 우리는 옷을 세탁소에 맡기고 찾아가거나 빨래를 제때에 돌릴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합니다. 때문에 세탁기에 아무렇게나 돌려도 망가지지 않는 튼튼한 옷, 오늘 밤에 널고 자도 내일 아침이면 바싹 말라있는 옷, 정성스레 다림질 해주지 않아도 주름이 지지 않는 옷, 커피를 부어도 쉽게 더러워지지 않는 옷이 가져다주는 편리함은 상상 이상의 행복감을 안겨 줍니다.

와디즈에서 ‘혼자 사는 남자를 위한 기본템’ 이란 수식어를 달고 나온 밀란팬츠가 인기를 얻은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패션스쿨에서 공부를 마친 디자이너는 세탁기 친화적인 원단으로 잘 오염되지 않고, 깔끔한 핏까지 갖춘 밀란팬츠로 340명의 서포터를 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외에도 춥고 더운 계절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는 의류 제품 역시 사랑받았습니다. 여름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바지나 갑갑한 속옷을 입지 않아도 티가 나지 않는 티셔츠가, 겨울에는 얇은 코트만 입어도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발열 의류들이 주목받았습니다.

기술의 발달이 무색하게 우리가 평상시 입고 다니는 옷은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와디즈 펀딩 트렌드를 살펴보면 가까운 미래, 우리는 조금 더 진화된 옷으로 일상적으로 겪었던 크고 작은 불편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원터치 푸드

업계에 따르면 지난 해 2500억 원의 규모였던 편의점 도시락 시장이 올해에 3500억원 규모로 약 40% 증가했다고 합니다.¹⁾ 이러한 현상은 한 번의 터치로 펼쳐 주기만 하면 완성되는 원터치 텐트처럼 간편하게 진화하고 있는 원터치 푸드의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원터치 푸드는 별다른 조리 없이 뜯어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알약만큼 작지는 않지만 가방 속에 가볍게 들어가는 크기로 챙겨 다니기 좋습니다. 간편하지만 대충 먹는다는 느낌은 들지 않도록 각종 영양소를 골고루 챙겨 넣었고 여기에 한 번 자꾸만 손이 가는 맛까지 놓치지 않았으니 한끼 식사라 부르기에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미래에서 온 프로틴 바’라 불린 퓨처엑스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바 하나에 단백질은 물론 탄수화물 칼슘 철분 비타민까지 가득 넣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덕분에 와디즈에서 550명이 넘는 서포터로부터 성공적인 펀딩을 받으며 원터치 푸드의 가능성을 입증해냈습니다.

단 5분 만에 완성할 수 있는 간단한 조리법을 가진 푸드들도 주목받았습니다. 따뜻한 물에 담갔다 빼기만 하면 되는 수비드 닭가슴살과 팬에 살짝 구워 먹는 베이컨, 전자레인지 3분으로 만들어 먹는 다이어트 떡볶이까지. 비상식량처럼 집에 한가득 채워 두고 싶은 푸드들이 연일 인기를 끌었습니다.

원터치 푸드 프로젝트는 18세 - 34세 사이 연령대의 서포터 참여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는 2030년까지 전체 가구의 3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1인 가구의 성장세와 결을 같이 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집 근처 편의점에서 쉽게 사먹을 수 있는 4,600원 짜리 도시락을 두고 굳이 기다리는 시간을 감수하면서 원터치 푸드 펀딩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편의점 도시락을 먹을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서글픔과 건강에 대한 염려를 신선한 맛과 든든한 포만감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1) 한국경제신문, “외식물가 상승에 편의점 ‘반사이익’... 올해 도시락 시장 3500억 달할 듯”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804090345A>

3) 스몰 아이디어 빅 컨비니언스



누구나 한 번쯤 겪어 봤을 법한 불편들,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누구나 한 번쯤 떠올려 봤을 법한 상상들. 다양한 프로젝트들은 그 상상을 와디즈펀딩을 통해 현실로 이루어 일상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작은 아이디어에 기술이 더해지면 더할 나위 없는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와디즈에서 6번의 펀딩을 진행한 코르크 스피커는 울림통이 없는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무거운 울림통 대신 빈 병에 꽂을 수 있게 만들어 훨씬 가벼워진 무게로 은은한 소리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무게는 줄었지만 성량과 음질은 웬만한 블루투스 스피커 못지 않아 3천여 명의 서포터로부터 1억4천만 원의 펀딩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치약 짜기 귀찮음을 없애고 물과 빛 만으로 입 속 세균을 없애는 솔라데이 광촉매 칫솔, 초를 켤 때마다 라이터를 사용할 필요 없이 버튼만 눌러주면 점화가 되는 루모스 캔들, 간단하게 담배냄새를 없애는 포켓 리프레셔까지. 이들 프로젝트 덕분에 누군가는 매일 겪었을 불편이 봄날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위대한 발명에 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경닦이가 지저분해지지 않게 폴더형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사소해서 스치듯 잊어버리기 쉬웠을 이 아이디어는 와디즈에서 1,600명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무거웠던 독서대는 단 300g의 독서대로, 들고 다니기 귀찮았던 칫솔 치약 세트는 씹어서 헹구기만 해도 되는 고체치약으로 만들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불편함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조금 비틀어 위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메이커와 이 열정을 외면하지 않았던 서포터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조합으로 빛을 발한 스몰 아이디어 빅 컨비니언스 제품들이 더욱 기대됩니다.

2.

무한의 기대수명

불멸의 황제가 되겠다 선언했지만 무력하게 죽어간 진시황.
우리는 그가 꾸었던 꿈을 비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일, 잘하면 되겠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 자리 수를 넘는 기대수명은 불가능한
꿈과 다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 한계는 점차 무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기대 수명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도 명예도 아닌 건강입니다. =

2. 무한의 기대수명

1) 프리미엄 푸드



먹는 것만 잘 먹어도 건강하다는 말은 여름에 물을 조심하라는
돌팔이 점쟁이의 점괘와
달리 들리진 않지만 그만큼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백화점 고급 푸드 코너에서 주로 보았던 굴비, 한우, 생양갈비
등의 프리미엄 푸드가 2018년 와디즈를 강타했습니다. 알면서도
속을 수 밖에 없었던 터무니 없는 가격, 온라인 쇼핑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낮은 퀄리티에 배신 당한 소비자들이 와디즈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음식으로 기력을
채우려는 서포터와 추석 등의 명절에 마땅한 선물을 찾고 있던
서포터들은 프리미엄 푸드 펀딩에 주저 없이 참여했습니다.

참치, 연어, 하몽 등 집에서 쉽게 즐기기 힘들었던 푸드도
인기였습니다.

특히 식당보다 2배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참치를 보내준 인생
참치 프로젝트는 와디즈에서 6번의 펀딩으로 2억원의 펀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프리미엄 푸드 프로젝트의 또 다른 성공
비결은 제품 구성에 있습니다. 소규모 가구가 많은 요즘, 기존 4
인 가족 기준의 틀에서 벗어나 1-2인부터 6-8인까지 다양해진
가구의 특성에 맞게 구성한 것입니다.

푸드에 불어온 프리미엄 바람은 간식류에도 불었습니다.
'한 통 다 먹어도 240kcal'라는 카피를 내건 라리스윗은
그동안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던 5천 명의
서포터의 불안을 달래주었고, 설탕을 덜어낸 0칼로리 슈퍼말차
역시 그동안 말차의 지나친 달달함 때문에 마음껏 차를 즐기지
못한 2천 명의 서포터에게 1억2천만 원을 모으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단백질 초콜릿, 방탄커피, 캐슈넛밀크 등 건강과 맛을
함께 고려한 간식거리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맛있고 싸기만 하면 장땡이었던 식품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설 자리를 잊고 있습니다. 라면 시장의 규모만
살펴보아도 2016년, 2조1612억 원을 기록한데 비해 2017년 2조
976억원으로 약 3% 줄었습니다.²⁾ 가성비보다 심리적 만족감을
중시하는 가심비 트렌드에 늘 건강을 생각하는 현대인의
마인드가 합쳐져 집에서 즐기기 편한 프리미엄 푸드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식품산업통계정보, <식품시장 뉴스레터 : 라면시장>, 2018.07, p.1

2) 웰 슬립



2018년 불면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2013년 대비 3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³⁾ 오늘의 좌절, 내일의 걱정으로 쉽게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꿀잠을 재워줄 제품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했습니다. (토퍼 매트리스 베개 이불)

최적의 숙면 환경을 만들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요? 바로 침구류입니다. 이에 토퍼, 매트리스, 베개, 이불 프로젝트들이 2018년 특히 각광받았습니다. 토퍼 평균 30만원, 매트리스 평균 40만원, 베개 평균 7만원, 이불세트 평균 20만원. 결코 낮은 가격도,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의 제품도 아니었지만 믿음직스러운 제품 제작 과정과 진심이 느껴지는 브랜드 소개로 서포터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LB호텔침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내외 유명 브랜드 침대의 OEM제조사가 유통비, 광고비 등을 뺀 합리적인 가격으로 침대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오픈한 것입니다. 눕기만 하면 잠을 재워줄 것만 같은 푹신한 침대에 서포터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1차 펀딩에서 85명의 서포터에게 칭찬 가득한 호평을 받은 후 다시 오픈한 2차 펀딩에는 3배가 넘는 300명의 서포터가 모였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지금까지 200건이 넘는 앵콜 펀딩 요청을 받으며 잘 자고 싶은 이들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늑한 침구류만으로는 숙면을 취하기 어려운 분들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를테면 수면을 돋는 음료, 꿀잠을 유도하는 패치, 빛과 소리를 완벽히 차단하는 귀마개 안대와 헤드폰 등입니다.

수면제나 수면유도제가 우리를 몽롱하게 만들어 얹지로 재우는 느낌이라면 이들은 신체 원리나 천연 성분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잠을 부른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중독의 위험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밤잠 설치는 이들의 기댈 곳이 되어주었습니다.

끝이 없는 불안과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현대인에게 드리워진 불면의 밤은 쉽게 걷혀지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꾸준히 합리적인 가격과 진심이 깃든 제품으로 꿀잠을 재워주려는 메이커와 그들의 진정성을 알아봐주고 브랜드의 유명세와 상관 없이 그들을 응원하는 서포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3) 양주현, <국민관심질병 통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09

3) 미세먼지 FREE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무한한 기대수명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적, 그것은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무한대로 살 수 있다는 희망은 고사하고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각종 질병으로 우리 삶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나섰습니다.

‘미세먼지 나쁨’이 뜨는 날이면 어쩐지 실내공기마저 찢찝하게 느껴져 공기 청정기가 간절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집에 맞지 않게 과도한 스펙을 가진 유명 브랜드의 공기 청정기 가격은 미세먼지만큼 두렵습니다. 다행히 탄탄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브랜드들이 펀딩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대의 공기 청정기를 선보였고, 서포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가 한창이던 6월, 퓨리팟 공기청정기는 와디즈에 등장하자마자 많은 서포터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유명한 기업의 제품은 아니었지만 18년의 업력과 CES 2017 혁신상 수상 경력, 군더더기 없는 제품 설명에 500여 명의 서포터의 신뢰를 이끌어냈습니다. 와디즈펀딩으로 5천5백만원을 모으는데 성공한 퓨리팟은 CES 2019 기술혁신상을 수상하는 영예까지 얻었습니다.

공기청정기나 환기청정기마저 부담되는 분들이 눈을 돌린 곳은 전기가 필요 없는 공기정화제와 마스크였습니다. 공기 정화제는 고체산소 또는 백토를 이용해 나쁜 공기를 빨아들이고 깨끗한 공기를 내뱉어 실내 공기를 정화해주는 제품으로, 주로 원룸에 거주하는 서포터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한국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마스크 역시 더욱 진화된 형태로 와디즈 펀딩에 도전했습니다. 숨쉬기 불편하고, 안경에 김이 서리고, 얼굴에 딱 맞지 않는 기존 마스크의 불편함을 보완해 더욱 철저히 미세먼지를 막아줄 무기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공기청정기부터 환기청정기, 정화제, 마스크, 필터까지. 2018년은 가히 미세먼지와의 전쟁이라 기록될만큼 많은 미세먼지 FREE 제품들이 등장했습니다. 서포터들은 피할 수 없다면 맞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신박하게 미세먼지를 이겨낼 수 있는 프로젝트들에 투자했습니다. 금방 사그라들 문제가 아니기에 깨끗한 공기를 숨쉬고 싶다는 염원을 담은 미세먼지 FREE 제품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만들어지겠지만 언젠가 이 제품들을 창고 구석에 넣어두어야 할 날이 오길 바랍니다.

3. LESS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것이 더 힘든 요즘, 사람들은 more보다 less
에 더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없애고, 불필요한 경계를 지우고, 각종 거짓
정보를 덜어내 합리적인 소비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프로젝트.

모든 것이 꽉 차다 못해 넘쳐 흐르는 세상, 이들은 과연 무엇을
덜어냈기에 이토록 주목 받은 것일까요?

1) Wireless : 무선이라는 자유



바야흐로 무선의 시대입니다. 무선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경험해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혁명적인 자유를 선사하는 무선 제품들. 이들의 화려한 향연은 비단 2018년에 그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청소기, 살균 건조기, 공기 청정기, 믹서기, 스탠드, 초인종 등 다양한 제품들이 ‘무선’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제품은 역시나 이어폰과 충전기였습니다. 특히나 무선 이어폰 프로젝트는 오픈 예정 시기부터 서포터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충전기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매번 케이블을 함께 가지고 다녀야 했던 불편함에 고통 받은 분들은 그냥 턱하니 얹어두기만 해도 알아서 충전이 되는 무선 충전기에 적지 않은 환호를 보냈습니다.

케이블 연결이 필요 없는 무선 충전 마우스 패드 게이즈 데스크 (GAZE DESK)에 대한 뜨거운 호응이 무선 열풍을 뒷받침합니다.

게이즈 데스크는 고급스런 가죽 마우스패드에 무선 충전 기능을 탑재하여 각종 스마트 기기로 지저분해진 책상 위를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착 얹어 두기만 하면 케이블이 필요 없게 되니 이 자유로움에 800여 명의 서포터가 반했고, 그 결과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습니다.

이 외에도 단지 무선 충전에만 그치지 않고 붙이기만 하면 케이블 없이 충전이 되는 무선 충전 배터리, 유무선 충전이 동시에 가능한 하이브리드형, 모듈처럼 연결해 여러 대를 동시에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해 무선이라는 자유를 원없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유선 전화기는 응답하라 시리즈 속에서나 볼 수 있게 된 시대. 이제 점점 더 많은 제품에 거추장스러웠던 선이 사라지고, 기존의 무선 제품들은 더욱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에는 어떤 무선 제품이 새로운 혁명처럼 다가올지 기대됩니다.

2) Genderless : 성별의 성역을 넘나들다



4) 이코노믹리뷰, “남성 1인당 화장품 구매액 ‘한국 1위’ 의미는”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7817>

소확행이라는 뜨거운 열풍이 불어닥친 2018년, 과거 행복의 기준이 타인에 시선에 의해 좌우되었다면 최근에는 내 안의 진정한 행복에 집중하려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성별에 따른 기준으로 묵살 당할 수 밖에 없었던 개인의 취향이 존중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는 패션, 뷰티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남성 화장품 시장이 전년 대비 4.1% 성장했습니다.⁴⁾ 이러한 트렌드는 와디즈 펀딩에서 특히 또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스스로를 가꾸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2034 그루밍족 남성들은 주로 여성을 모델로 한 수분크림, 에센스, 클렌징 제품의 프로젝트에도 망설임 없이 펀딩했습니다.

유리스킨의 멜라노크림 프로젝트에 참여한 3700여 명의 서포터를 분석한 결과 43%가 남성으로 나타났으며, 클렌징 제품인 세수 한 번 프로젝트 역시 700여 명의 서포터 중 36%가 남성 서포터였습니다. 여성용이라고만 여겨졌던 청결티슈 프로젝트에는 ‘남자는 쓸 수 없나요?’라는 댓글이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서포터를 분석한 결과 예상보다 많은 남성이 펀딩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패션 카테고리에서는 젠더리스 트렌드가 보다 명확히 드러납니다. 넉넉한 사이즈의 무채색 옷은 남자 것, 몸에 딱 붙는 사이즈의 컬러풀한 옷은 여자 것이라는 경계 없이 모두에게 편안한 핏, 다채로운 컬러를 선보이는 남녀 공용 의류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성별의 구분을 없앤 젠더리스 속옷, 케인피오니어는 1천 명이 넘는 서포터로부터 5천만원의 펀딩을 받으며 2018년 최다 서포터 모집 프로젝트 9위를 기록했습니다.

‘남자는 블루, 여자는 핑크’라는 생각은 어느새 구시대적 발상이 되었습니다. 남성이 피부 관리를 받는 것이, 여성이 드로즈를 입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오늘날. 다양한 제품에 있어 성별의 구분은 점점 희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Guileless : 거짓 없는 진심

아빠놀이 백과사전 (4회)
3,998명 서포터
83,466,100원 펀딩



알렉스 텀블러&머그 (2회)
6,966명 서포터
272,739,600원 펀딩

최저가와 과대 광고로 눈속임하는 제품들은 금세 외면 받습니다. 거짓된 정보는 덜어내고 진솔한 스토리와 정직한 소통으로 오래오래 함께 할 팬을 만난 프로젝트들을 소개합니다.

펀딩 종료를 7일 앞두고 정상회의로 인해 중국 정부가 일주일간 공장 가동을 중지하란 조치를 내려 배송일이 예상보다 한 달 지연되는 위기를 겪은 알렉스 텀블러. 하지만 배송 지연 소식을 듣고도 펀딩을 취소하지 않은 서포터 덕분에 4천여 명의 서포터로부터 2억이 넘는 금액을 모았습니다. 비결은 스타벅스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해 믿을 수 있는 품질, 기존 텀블러의 불편을 해소한 혁신을 과장하지 않은 스토리와 서포터 한 명 한 명에게 다른 답글로 일일히 응대한 메이커의 정직한 소통 덕분이었습니다.

퇴근 후 ‘아빠 저리가!’ 하고 밀어내는 아이 때문에 충격을 받아 만들었다는 아빠놀이 백과사전은 와디즈에서만 3번의 펀딩을 진행해 약 4천 명의 서포터를 모았습니다. 아빠라면 공감할 수 밖에 없는 진솔한 스토리와 많은 고민 끝에 나온 것이 분명해 보이는 콘텐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양봉하는 꿀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한 딸은 스틱형 꿀을 생각해냈습니다. 빠른 속도로 하루를 달려내느라 지친 사람들에게 ‘너무 힘내지 않아도 돼, 힘 빼고 같이 꿀 빨자.’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건네 많은 이들의 공감과 사랑을 받은 꿀빼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메이커에게는 서포터 역시 더욱 마음을 열고 다가갑니다. 제품 뿐만 아니라 만든 이의 매력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곳이기에 와디즈 펀딩이라면 더욱 인간적이고 끈끈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4.

라이프 밸런스

워라밸, 주52시간 근무제, 올로, 휴게 등 2018년에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 단어들에는 균형 잡힌 삶에 대한 갈망이 담겨있습니다.

삶이 주는 압박은 여전히 무겁고, 밤이 캄캄해져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은 언제 바뀔 지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자신의 저녁을 의미 있게 꾸려보려는 이들의 기분 좋은
움직임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1) 슬기로운 취미생활

퇴근 후 씻고 바로 잠드는 생활의 반복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이들이 주목한 키워드는 바로 ‘취미’입니다. 자발적 취미 유목민이 되어 요리부터 게임까지. 잠자기 바빴던 시간을 알차게 채워줄 슬기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게 맞는 취미는 무엇일까?’ 취미 찾기에 앞서 나를 찾고 싶어한 서포터들에게 나를 들여다볼 수 있게 질문을 건네는 질문북과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너를 알아가는 대화카드 펀딩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세프가 전하는 레시피와 스마트 저울의 도움으로 요리를 배우고, 로우로우 카메라백을 어깨에 멘 채 렌즈 속에 세상을 담기도 했습니다. 매달 농장에서 보내주는 꽃으로 꽃꽂이에 도전하거나 나만의 맥주 취향을 찾아 항해를 떠나며 다양한 취미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매달 전 세계 작가의 작품을 문 앞까지 배송해주는 그림 정기구독 서비스, 핀즐 역시 취미의 새 지평을 여는데 한 몸 했습니다. 평소 그림에 관심이 많았던 서포터들은 그림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를 전해주는 핀즐에 열광했습니다. 300명의 서포터를 모으는데 성공한 핀즐은 이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로 2018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위너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골프나 라이딩, 스쿠버다이빙처럼 액티브한 취미를 즐기는 서포터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스마트폰을 만능 스쿠버 장비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다이브메모리와 운동 능력을 높여주고 부상을 방지하는 압박 테이핑 양말, 골프 스윙 분석을 도와주는 스마트 골프 클럽 등의 프로젝트들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며 스마트 모빌리티, 게임 기기, 등산용품 등 취미와 관련된 제품의 매출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삶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고조되는 요즘, 더욱 재미있고 참신한 취미 프로젝트들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와디즈 서포터와 만나 어떤 시너지를 발휘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다이브로이드 미니
271명 서포터
41,857,000원 펀딩

2) 홈캉스

유난히 더웠던 2018년의 여름, 바다를 찾는 여행객은 줄고 대신 시원한 호텔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호캉스족이 크게 늘어습니다. 하루이틀의 호캉스에 만족하지 못한 이들은 다시 집으로 눈길을 돌립니다. 홈캉스족의 탄생입니다.

따로 조식을 챙겨주는 이는 없지만 카페까지 갈 필요 없이 향긋한 콜드브루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담아줄 티크 도마는 간단한 샌드위치나 과일만 올려 두어도 멋스러워 보이도록 해줍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선 아날로그 느낌 가득한 원목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여유로운 휴식 시간을 가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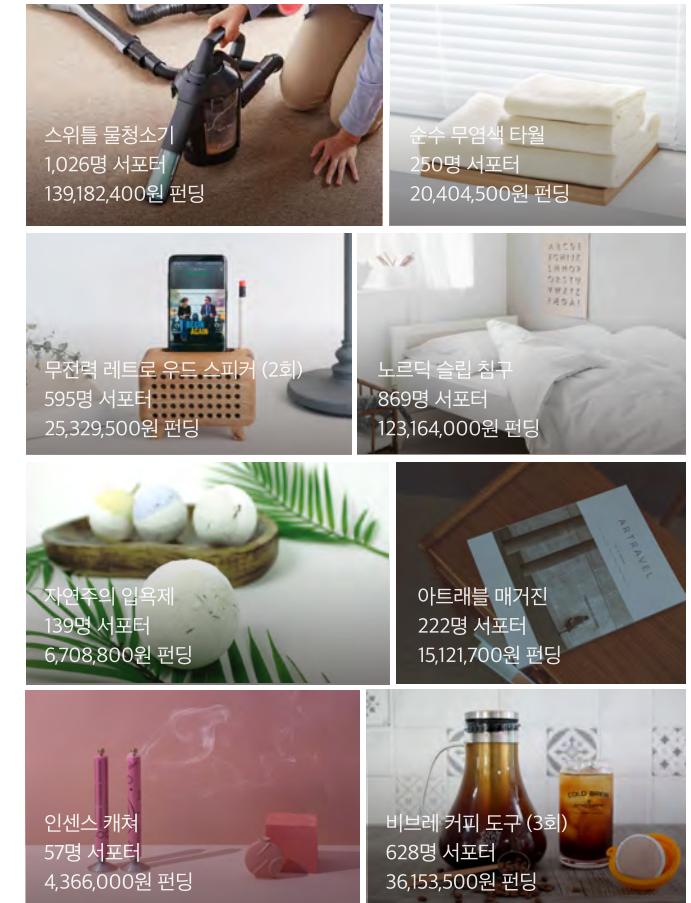
어느 덧 찾아온 점심 시간에는 쾌적한 실내를 위해 청소를 시작합니다. 카펫이나 소파, 매트리스에 묻은 오염까지 지워주는 물청소기로 소파 위에 쓸았던 커피의 흔적을 말끔히 지웁니다. 간단한 청소를 마치고 깨끗해진 소파에 누워 잡지를 읽습니다. 가고 싶었던 여행지를 매력적으로 담아낸 여행 잡지는 꽂아만 두어도 인테리어용으로 손색 없지만 들여다보면 더욱 아름답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엔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밥과 국, 간단한 반찬 몇 가지지만 고급 한정식 식당을 떠올리게 만드는 도자기 식기 세트가 정갈한 저녁상 준비를 돋습니다. 뒷정리까지 마친 후에는 어둑한 밤공기에 어울리는 은은한 향을 피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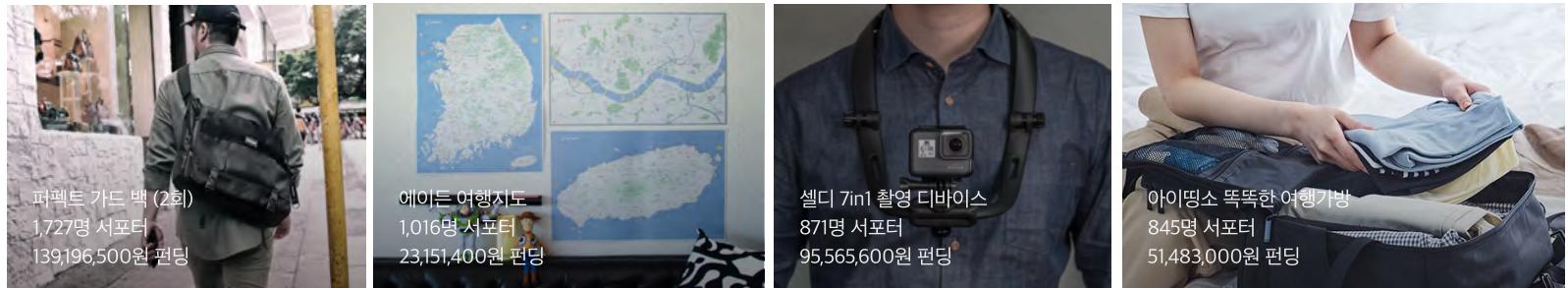
하루의 마무리를 위해 화학성분을 쓰지 않는 입욕제로 반신욕을 즐깁니다. 바다 건너 온천도 부럽지 않은 따뜻함과 향기로움에 취해 홈캉스의 절정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목욕을 마친 후에는 뽀송한 무염색 수건으로 몸을 감싸줍니다.

이제는 잠에 들 시간입니다. 어미새가 애기새를 따듯하게 품고 있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는 인공눈 소재의 침구는 내 몸에 딱 맞는 모양으로 갖춰져 눈 감는 순간부터 단잠을 선물해줄 것만 같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듯 빼앗긴 저녁을 되찾으니 일찍 집에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자연스레 집을 더욱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줄 프로젝트도 늘어났습니다. 색다른 방식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을 즐겁게 만들어줄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3) 떠나니까 청춘이다.



저녁 시간 잠깐의 여유로는 성이 풀리지 않을 때, 과감히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수고한 나에게 보상처럼 건네는 꿀같은 여행 시간. 자주 떠날 수 없기에 더 값진 여행을 더욱 고퀄리티로 만들어줄 프로젝트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행을 가야겠다! 다짐했지만 막상 어디로 가야할 지 모를 때, 그럴 때는 지도를 펴야 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직접 방문하고 지인 친구와 검색, 검증을 통해 가이드북 100페이지 분량의 국내 여행지와 여행 정보를 담은 에이든 여행지도 한 장이면 스마트폰도 민망해집니다. 주말마다 어디 가지 고민했던 서포터들은 메이커의 정성이 가득 담긴 스토리와 지도에 열렬히 환호했고, 그 결과 에이든 여행지도 프로젝트는 와디즈 여행 레저 카테고리의 최다 서포터 모집 프로젝트로 기록되었습니다.

지도와 검색으로 여행지를 정했다면 짐을 챙길 차례입니다.

장기 여행을 떠난다면 큰 캐리어나 배낭을 챙기면 되지만 문제는 짧은 여행입니다. 출퇴근할 때 들고 다니는 백팩은 조금 작고, 배낭은 지나치게 커서 부담이 됩니다. 아이띵소의 똑똑한 여행 가방이 845명의 서포터에게 성공적으로 펀딩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똑똑한 여행가방은 9개의 파우치를 1개의 가방에 해워넣은 가방입니다. 의류와 속옷, 양말, 화장품, 신발과 노트북까지 별도로 챙겨 넣을 수 있는 각각의 공간이 있어 단기 여행용 가방으로 제격입니다.

여행지 곳곳에 도사리는 도난 위험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해줄 든든한 보조가방도 필수입니다. 칼로 찢으려 해도, 기계로 복제하려 해도 쉽게 틈을 주지 않는 퍼펙트 가드 백은 2번의 펀딩에서 1,700명이 넘는 서포터의 펀딩을 받으며 해외 여행의

잇 아이템으로 떠올랐습니다.

여행의 추억을 담아줄 제품 역시 빠질 수 없습니다. 나를 영화 감독으로 만들어주는 셀디는 스마트폰만으로 영화 같은 여행 영상 촬영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촬영 디바이스로, 800여 명의 서포터로부터 1억에 가까운 펀딩을 받았습니다.

해외출국자 수가 매년 최고치를 간신히 넘는 와디즈 펀딩의 여행 카테고리의 규모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명한 브랜드는 없지만 누구보다 여행을 잘 알고 잘 즐기는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담긴 기발한 프로젝트들이 꾸준히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행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19년에는 여행용품 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떠나는 여행 상품 프로젝트가 서포터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5.

더불어 사는 세상

3명의 팔로워만 거치면 온세상 지구인이 나의 지인이 될 수 있는
복잡한 네트워크의 세상, 오늘 내가 먹은 빨대가 지구 반대편
거북이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세상이자 가족보다 더
가족같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더불어 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1) 럭셔리 팩팸족



나는 라면을 먹어도 내 반려동물은 고급 사료를 먹이겠다는 의지로 살아가는 반려인들. 고가의 반려동물 용품도 마다 않고 얼리버드를 쟁취하기 위해 마우스를 사리지 않는 럭셔리 팩팸족을 소개합니다.

크라우드펀딩으로 반려인을 사로잡은 제품들은 대체로 고가의 것들이었습니다. 내 것을 산다 해도 부담스러운 가격대의 제품이었지만 내 반려동물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 럭셔리 팩팸족은 아낌 없이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반려동물의 건강과 멘탈을 동시에 케어해주는 바램 펫 피트니스 로봇과 반려동물이 물을 많이 마실 수 있도록 호기심을 유발하는 빛을 담은 정수기, 혼자 있는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함께 놀아줄 인공지능 로봇 고미볼과 같은 프로젝트들이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이들 잠자리를 걱정하는 부모처럼 반려동물이 뛰놀고 잠들 아늑한 공간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양이의 심리를 반영한 캡풀과 팩휠, 고양이 터널, 관절이 약한 강아지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방석에 반려인들은 망설임 없이 펀딩했습니다. 반려인의 고민을 시원하게 짚어주는 프로젝트들도 있었습니다. 목욕 후 말릴 때만 되면 드라이어기에 놀라 잽싸게 도망가는 반려동물을 위한 드라이룸과 드라이브러시, 늘 멀찍이 떨어져 혼자 노는 고양이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루밍 브러시와 캣토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반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사료, 배변용품 등의 반려동물 용품이 인기를 끄는데 반해 와디즈에서는 반려동물의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제품들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람과는 다른 반려동물의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한 메이커들이 그러한 노력을 인정해주는 서포터들을 만나 활기를 띠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의 시각에 맞추어 만들어졌던 반려동물 제품들은 점차 외면 받을 것입니다.

2) 스포트라이트 프로젝트

세상에는 주목받아 마땅할 이야기들이 넘칩니다. 지진 이후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포항의 특수학교 이야기, 장애인 배드민턴 선수 선빈이의 이야기, 잔인하게 버려진 유기동물의 이야기. 정작 현실은 그들에게 어떤 스포트라이트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편딩이 재조명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자폐성 장애인에게는 평범한 소리. 우리에게 익숙한 소리를 내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평범한 소리가 우리의 평범한 소리가 자연스레 어우러지길 바라며 자폐성 장애인의 소리를 음악에 녹여내는 <평범한 노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펼치는 공연에 170명의 서포터가 참여했고, 평범한 노래는 성공적으로 울려 퍼질 수 있었습니다.



자폐성 장애인과 함께 어우러지는 평범한 세상
178명 서포터
4,630,500원 펀딩



신소정 선수 은퇴파티
125명 서포터
6,375,090원 펀딩



에이드런 (2회)
511명 서포터
26,842,000원 펀딩



손끝으로 만드는 세상
93명 서포터
3,150,000원 펀딩

지난 평창 올림픽, 남북단일팀으로 이슈가 되었던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신소정 선수의 프로젝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21년간의 아이스하키 선수 생활을 내려놓고 은퇴를 앞두었지만 비인기종목의 선수는 은퇴마저 축하 받기가 어렵습니다. 선수 시절부터 꾸준히 지켜봐준 분들과 앞으로 자라날 아이스하키 유망주를 위해 신소정 선수는 와디즈 펀딩을 통해 은퇴파티를 준비했고 그녀의 꿈에 동참한 125명의 서포터 덕분에 파티가 무사히 치뤄질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발달장애인 아들이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기 위해 빵을 만들기 시작한 황선학 파티셰의 작은 빵집, 손끝으로 만드는 세상을 후원하는 프로젝트, 미술 봉사를 통해 들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디자인에 담는 에이드런의 프로젝트와 유기동물보호소의 재정적인 자립을 돋는 클로렌즈 프로젝트 등이 와디즈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들 프로젝트는 다른 각도에서는 슬프게 들릴지도 모를 이야기들을 저마다의 방법으로 즐겁고 따뜻하게 들려줍니다. 덕분에 와디즈 펀딩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유쾌한 방법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3) 지구 환경 수비대



지구는 필연적으로 빙하기와 온난기를 겪었기에 지구온난화는 당연한 것이다. 라는 가설은 과학자마다 의견이 갈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구의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 이를 막기 위해 인류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환경 파괴로 가장 고통받는 것 중 하나는 극지방의 동물들입니다.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 점점 터전을 잃어가는 이들은 멸종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노란눈이 매력인 노란눈펭귄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종 중 하나로 25년 뒤면 완전히 사라집니다. 미크 팀은 이 아이들을 구해내기 위해 노란눈펭귄이 그려진 에코백과 텁블러, 손수건을 준비해 머지 않아 사라질 이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노란눈펭귄의 이야기에 슬퍼했다가 이들이 그려진 굿즈에 귀여운 미소를 감출 수 없었던 100여 명의 서포터들의 참여로 펀딩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들의 터전을 빼앗는 가장 큰 원인은 남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입니다. 이에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여줄 한 손에 쑥 들어오는 알렉스 머그 컵, 동물을 죽이는 방아쇠를 닮은 플라스틱 빨대를 대신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빨대, 플라스틱만큼 자연 생분해가 되지 않는 알루미늄 호일을 대체할 친환경 실리콘 랩 등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친환경이라는 말의 무게가 예전에 비해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 요즘, 획기적이고 편리한 방식으로 환경을 지키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젝트들은 환경 파괴 문제가 심화되어 갈수록 더욱 각광받을 전망입니다.

매주 금요일,
최신 비즈니스 트렌드를
당신의 메일함으로 보내드립니다.

뒤쳐지고 싶지 않다면?

와디즈 메이커 뉴스레터
구독하기



event

아무도 모르던
무명에서

와디즈펀딩의 메이커가 되어보세요!
지금, 와디즈에서 리워드 펀딩 오픈 신청만 해도
<100% 성공 노하우>를 전달드립니다.

[오픈 신청 방법 보러가기 ▶](#)
[지금 바로 오픈 신청하기 ▶](#)

누구나 알 만한
유명으로

Wadiz

발행일 2019년 1월

Tel 1661-9056

E-mail info@wadiz.kr

Web www.wadiz.kr

배포부서 리워드 사업관리팀

작성 문연이 프로

디자인 김도희 프로